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0호 2019년 05월 19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28	06. 02	06. 09
대 표 기 도	유미경 집사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유미경 집사	오한솔 자매	김효종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안 내 위 원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대상16~29장, 룿1~4장)
2. 스승의 주일 -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말씀 나눔 - 친교실 정리 후 5번 교실에서 모입니다(본문 - 골3:12~17절)
4. 졸업연주 - 윤 솔 자매(23일, 19시, 음대)
5. 5월 찬양집회 - 25일(토) 18시 음대 강의실 217호실에서 모입니다.
6. 나눔의 시간 - 김영희 권사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새 교우	이수현, 김남희 가정 (예은, 은성, 은우)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라마단(5월 6일부터 6월 4일) - 모슬렘인들을 위하여
3. 기도모임이 살아나고, 각 기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4.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5. 투병 중인 성도의 치유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46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49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06장 다같이
- 기 도 Gebet 문정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딤편 5 : 1- 8(신 p340) 문정현 집사
(1.Timotheus 5:1-8)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감당해야 할 역할!**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10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유미경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말씀으로 키우기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현재에 이르는 4,000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의 절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의 경우 안식일에 전화를 걸거나 받지도 않고, 회당이 아무리 멀어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면 부모가 침대 머리맡에서 성경과 탈무드, 동화를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소위 베킷머리 교육인데 부모는 이를 자신들의 의무이자 일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네 살이 되면 벌써 1,500개 이상의 어휘를 소화해 낸다고 합니다.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책에 나오는 무수한 단어를 들으면서 사고력과 어휘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성경, 특히 모세오경부터 읽고 외우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영어나 수학,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성경과 동화를 읽어 주고, 아버지는 주말에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할 때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 곧 성경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조기 성경 교육에서 얻은 정체성은 유대교를 4,000년 이상 유지하게 하는 힘이고, 나라 잃은 민족이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게 한 힘이며,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한 힘이자,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 故 전성수 교수

* 불순종의 배후 세력은 불법의 주인인 사탄이다 - John Bevere -